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十九)

칸트氏

鼎言生

칸 트 氏

『氏의 略傳』 氏는 一七二四年에 獨逸에 生하여 有名한 哲學者로써 實히 世界의 思想界에 在하여 空前絶後의 大人物이라. 其名著 『純粹理性批判』은 古今無比의 嶄新한 思想을 包有한 者니, 萬一 此에 比할 名著를 講究한즉 『플라톤』의 共和政治論, 『아리스틀-트[아리스토텔레스]』 形而上學, 『쓰셰노쓰아[스피노자]』의 倫理學 及 『데칼트[데카르트]』의 哲學原理라 할지나, 然이나 其思想界에 關하여 古代無邊하며 森嚴幽極한 眞理의 分量과 嶄新한 一種의 力에 至하여야는 此에 比할 者 無하도다. 氏는 批評折衷主義로써 智識의 實體에 關하여는 『라이쑤니쓰[라이프니츠]』 及 『히눔』의 說을 折衷하고, 智識의 起源에 關하여는 『록크』 及 『라리쑤니쓰』說을 斟酌하며, 外實體의 實在에 關하여는 『데칼트』 及 『리-토』 等の 說을 折衝하여 哲學上으로부터 教育의 學說을 論究한 것이라.

氏의 原籍은 元蘇國에 出하여 父는 馬具商으로 家勢가 甚貧하여, 氏로 宗敎家가 되기 爲하여 『시를쓰트』라 稱하는 神學者에 從하여 中等教育을 受하고, 一七四〇年에 其他의 大學에 入하여 哲學, 數學 及 神學을 學하니라. 哲學은 氏의 가장 趣味가 多한 學問으로써 其進歩가 非常히 著하여 大히 敎授의 信用을 得하얏도다. 卒業 後에 私敎授가 되야 若干의 收入을 得하여 其研究 學費의 不足을 充하여 自己의 嗜好하는 哲學을 研究코자 하얏스나, 不幸히 卒業 後 幾日에 父의 喪을 當하여 少額의 學費로 安葬하니, 更히 他道가 無하얏도다. 其後 二七四六年으로부터 家庭敎師가 되어 九個年間을 此에 從事하다가 一七五五年에 비로소 鄉里 大學의 私敎授가 된 資格을 得하여 數學, 物理學, 論理學, 形而上學, 倫理學 等を 講하고, 二年 後에 自然地理學을 加하며 後 又 三年에 自然神學 及 人類學을 加擔하니라. 氏는 일직이 『룻소』의 『에밀』을 讀하여 其小說에 感하고 又 少時에 在하여 得한 寺院的 教育의

經驗 及 家庭教師로써 得한 바 智識과 自己의 哲學上 智識에 依하여 教育學을 研究하고 一七七〇年에 論理學 及 哲學의 教授에 任하얏스며, 一七八一年에 純粹理性批判을 出版하얏스나, 六年 後 其非凡한 形而上學者됨을 知게함에 至하여 爾來氏의 講堂은 立錐의 地가 無하얏도다. 氏는 其後에 更히 實踐理性批判, 論理學 及 斷定의 批判이라 稱하는 名著를 出하니라. 其後로도 哲理의 研究에 專力하다가 一八〇四年에 八十歲의 高齡으로 羽化하니라.

氏는 幼時로부터 神學家의 嚴格한 教育을 受하얏슴으로써 性이 嚴格鄭重하여 獨立의 氣概가 富하며, 其舉動이 恒常 一定의 法에 適하며 一生一轍의 目的을 固守하고 毫도 不德의 行이 無하얏도다. 氏의 生活은 恒常 貧窮의 淵에 沈하여 晩年의 十二三年間 外에는 衣食의 窮한 時가 多하얏슴으로, 六十六歲에 至하기까지는 一家庭을 組成할 資力이 無하여, 妻를 聘키 不能함으로 其生涯는 맛참내 獨身으로써 其身을 終하얏도다. 平素에 哲理의 研究에 其心を 盡함으로써 無常의 業으로하여 暫時라도 倦함을 不知하얏도다. 六十七歲의 傾에 至하여 比로소 一小屋을 借하여 自宅으로 하고 起居飲食을 常히 一定의 時로써 하얏스며, 十五年間 一回라도 講義의 時間에 後함이 無하며 八十年 平生의 一次도 海外에 遠遊한 事가 無하고, 僅히 近方의 庭園에 散步함에 止하얏도다. 氏는 生來로 自體가 虛弱하여 深히 飲食을 絶하며 一定의 運動을 守하여 其健康을 報하얏도다. 氏의 風采는 恒常 患者와 如하여 口舌이 呐辯함으로 聽講者는 大히 困難하되 唯其思想이 脫俗하여 生活에 自作飾이 無함은 大히 學生의 稱揚하는바 되얏도다. 氏는 天性이 語學의 才에 良하여 羅旬文과 英佛國語에 通하며 文章은 甚히 拙하여 定히 解키 難하얏도다. 生涯가 貧寒하되 漫히 人의 惠與를 請치 아니하얏스며 私教師로 在하얏슬 時 他의 大學에서 非常한 待過로써 聘하얏스나, 此에 應치 아니하고 四十五年間을 私教授의 任에 留하여 漸次로 其名聲을 四方에 關하얏도다. 此에 際하여 各處에 有名한 大學으로써 更히 氏를 迎하얏스나 都是 此에 應치 아니하고, 單히 四十二年間을 一日과 如히 自己의 講義室에 獻身하여 每日 出入하는 近千名의 學生으로써 哲理를 講義하며, 思想을 討論하여 大히 感化를 與하얏도다. 氏가 六十七歲에 至하여 僅히 一小屋을 自宅으로 하고 此에 閉居하여 哲學을 研究할 畧으로 生涯를 作할새 一日은 其友人이 來訪하여 氏의게 問하되, 『君은 무엇으로써 處世의 樂을 作하는가? 四十餘年 大學教授에 此借居 一間이 君의 資金이오, 家庭은 人間의 樂園이라 夫婦相樂함이 人事에 莫大한 幸福이어날 君은 七十老境에 至하도록 其幸福을 得치 못하얏스니, 君의 樂은 實로 何에 在함을 不知하노라.』 問하얏도다. 氏는 此에 答하여 『余는 此의 室에서 此哲學을 研究함이 處世의 幸福生活이라.』 하얏도다. 氏는 如斯히 其

精力은 哲學研究에 供하고 其生活은 學者의 本領을 守할 畧이엇도다.